

[ 4·9 총선 ]



당신의 소중한 한 표 버리지 마세요...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학생회협의회는 8일 송원대학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표 당일 1인당 10명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기, 가족·친지들에게 독려하기 등의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학생회협의회는 송원대·호남대·광주대·동신대·목포대·순천대·대불대·초당대·목포과학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선거일 호우... 누구에게 유리할까

광주·전남 30~70mm 비  
투표율 50% 밑돌 가능성  
각 당 선거전략 차질 비상

4·9총선이 치러지는 9일,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 선거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뚜렷한 이슈가 없어 가뜰이나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까지 내릴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 각 당과 후보의 선거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8일 "선거 당일인 9일 광주·전남에 오전 6시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비가 내리면 유권자들의 실외 활동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어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당과 후보들은 이번 총선 투표율이 17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 60.6%에 크게 못 미치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

을 뒤흔들 만한 이슈가 없어 부동층이 전국적으로 40%에 육박하는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투표율 포기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낮아지면 대체로 중·장년층보다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더욱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진보·개혁적 성향이 강한 젊은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보수 성향의 여당이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함을 쓰고 있다. 순화규 민주당 대표도 최근 "선거당일 비까지 올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자칫 50%를 밑돌 염려가 있다. 민주당의 위기"라고 투표율을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선거일인 9일 남해상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지역에 30~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도 치겠다"고 예보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승리 장담속 부동표 공략 총력전

총선을 하루 앞둔 8일 광주·전남의 이른바 '격전지역' 후보들은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부동층을 공략했다. 지난 3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상황에서 후보들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0~20%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표심 끌어안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 광주·전남 '격전지역' 5곳 막판 표심 잡기 "대세 굳었다" "막판 역전" 치열한 기싸움

◇광주 남구=민주당 지병문 후보측은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선거 당일 부동층의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에 나서면서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 견제 심리가 선거 막판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지 후보 측이 막판 역전극을 기대하는 이유다. 무소속 강은태 후보측은 인물론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다 그동안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20%포인트 이상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또 지역구에서 강 후보에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쥐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승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광산구 갑=민주당 김동철 후보 측은 선거 막판 한나라당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승리를 낙관했다. 특히 지난 4년간의 성실한 의정 생활이 바다 민심에 전달됐고 도덕성과 인물론 측면에서 감점을 보이고 있어 많게는 20% 이상의 득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무소속 송병태 후보 측은 이미 '바퀴' 열풍이 지역구를 휩쓸고 있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자신했다. 송 후보의 일꾼론이 바닥 표심을 전달되면서 관세가 이미 역전됐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구청장을 지내면서 지역구 구석구석을 다져왔다는 점도 승리의 요인으로 들고 있다. ◇목포=민주당 정영식 후보 측은 한나라당 견제가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극적인 후보단일화까지 이뤄지면서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후보 단일화는 지지율의 뒷받침이 아닌 공생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 민주당과 애환을 함께 해온 목포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무소속 박지원 후보 측은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 후보가 인물론에서 경쟁 후보를 크게 따돌린 상황이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또 DJ의 복심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50년 민주세력의 적통을 잇고 있다고 강조하며, 후보단일화는 '차탄 속의 태

풍'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안·신안=민주당 황호순 후보측은 10% 이상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무안은 물론 신안에서도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 지연으로 황 후보의 인지도가 낮았지만 그동안의 유세에서 참 일꾼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선거 당일 부동층의 표 쏠림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무소속 김홍업 후보 측은 민주당 후보가 인물론에서 밀리면서 선거 중반 이미 전세가 역전됐다는 입장이다. 또 보결선거로 등원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쥐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DJ 바람'이 확산되면서 부동층에 머무르던 DJ 지지층이 적극 투표의 사를 보이고 있어 최소한 10% 포인트 이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해남·완도·진도=민화식 민주당 후보측은 선거 막판 각종 무머가 나돌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세를 뒤엎을 정도는 아니라며 승리를 낙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 후보 측은 검찰에 고발된 2건의 금품 제공 사건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동점표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김영록 무소속 후보 측은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민 후보의 금품제공 의혹이 터지면서 관세는 역전됐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측은 도덕성과 인물론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금품제공 의혹으로 지역 민심은 민 후보에 등을 돌렸다면 승리를 자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지원, DJ 방미 수행 배지 달고 갈까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햇볕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1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을 수행하는 박지원 후보(목포·무소속)의 총선 당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후보는 대북송금 특검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을 정도로 햇볕정책에 앞장섰으며, 이번 방미 기간 중에도 DJ와 함께 각종 강연과 연설을 통해 '대북 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어서 이번 총선 당락에 따라 역할과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DJ의 이번 방미 일정은, 대북 강경노선을 표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일정(4.15~19)과 우연찮게 겹치고 있어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

오는 DJ의 햇볕정책과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도 관심거리다. 결국 박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DJ를 수행할 경우 6차 회담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 미국 측의 정책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DJ의 이번 방미는 허버트대 총장과 포틀랜드 시장, 전미국제문제협의회 등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DJ와 박 후보는 모두 5차례의 강연과 연설을 통해 6차 회담의 성공과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동수 득표맨 연장자 당선 백병 많아 사상 첫 출현 가능성

제18대 총선 상당수 지역에서 막판까지 초박빙 혈투가 벌어지고 있어 당락의 운곽을 점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60~70개 지역구가 오차범위 내 다툼을 벌이는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지역구 245곳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 역대 총선에서 최소표차 당선 기록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때 경기도 광주 선거구로, 당시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가 민주당 문학진 후보를 3표 차이로 간신히 따돌렸다. 16대 총선은 근소표차 당선인 어느 때보다 많았

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가 민주당 허인회 후보를 11표 차로 이겼다. 이런 가운데 총선 사상 처음으로 동수 최고득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1~2위 순위가 엇갈리는 곳이 속출할 만큼 혼전지역이 적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선거법 188조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풍양속으로 여겨지는 경조사상과 경문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계산관위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전통운세' (Traditional Fortune-telling) featuring various individuals and a phone number: 0601700-3657. The ad includes text like '이름만으로 심경, 심해 생활운을 알려준다' and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에게 맞는 해답을 전합니다'.

Advertisement for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Clean Lake Resort Home Sales) featuring a scenic lake view and contact information: 1581-6070-52. The ad includes text like '부동산 자매회 푸른모수 파슨 서상리 자연IN 전원주택마을'.